



기도하는 마음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종교적 신앙에 대한 믿음의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종교적 믿음은 현세에서의 나의 부족함을 위대한 능력을 가진 신으로부터 도움을 바라면서, 불확실한 미래와 내세에 대한 신의보장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

어떤 종교이거나 공통점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이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 불행한 미래와 내세가 있다는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은 신의 응답을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기도에는 신에게 갈구하는 기도의 주제가 있다. 따라서 기도의 주제가 긍정적이고 선을 향하고 실천하는데 부족함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어야지 노력을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바라는 악을 행하면서 신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주제에는 신의 응답을 기대 할 수 없다.

나의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하여 노력하고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도록 기도 해야 할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조물주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노력은 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면서의 기도는 선을 지향하시는 신의 응답을 기대 할 수 없다.

도박이나 증권투자를 해서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기도를 한다면 어떤 종교의 신도 응답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는 나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을 성취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선한 마음과 행동이 나로부터 이웃에 지역사회에 국가에 전 세계에 메아리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반드시 응답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자신에 대한 기도, 이웃에 대한 기도, 국가 사회에 대한 기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신에게 나의 간절한 소망을 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끝을 맺는다. 기도하는 마음은 선을 행하는 감사한 마음이며 나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의 마음이 충만 되어 있는 마음이다.

기도하는 마음은 순수하고 탐욕이 없으며 솔직하며 고귀한 마음이라 한다. 기도하는 마음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기도하는 마음이란 간절한 마음을 말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구한다는 뜻과 같은데,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진실된 외침을 마음속에 담아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기도란 겸손함을 뜻하기도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일에 임한다는 것이다.

기도를 잘하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하루 한 시간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한다. 밀레의 만종그림을 보면 농장에서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석양에 집에 돌아 갈 무렵 멀리 교회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에 귀를 귀 울리며 간절히 기도 하는 모습이다. 성실한 삶과 자기의 하루 일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잊 볼 수 없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고 싶어 한다. 성공이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연 환경을 파괴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성공 하려면 나의 가능성을 긍정적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실천하면서 종교적 신앙의 믿음인 기도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실천하는 생활을 한다면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면서 내가 하는 일의 결과는 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신인 하느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한다.

철저한 월동준비로 안전한 겨울나기

정은유 여수소방서 화확119구조대 소방장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더니, 비가 온 뒤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추운 날씨를 대비해 가정에서도 전기장판과 난로 등 난방기구를 꺼내 들며 우리동 준비에 나선다.

소방에서도 월동준비라 하여, 각종 소모품 점검과 오일류 교체 등 소방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눈삽, 너까래, 모래주머니 등 월동장비 또한 재정비를 하게 된다.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실내 공기 질도 많고, 편리하게 쓰이는 난방기구를 사용하지만, 무분별한 난방기구 사용과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100건당 사망·부상자가 겨울철이 다른 계절 5.59명에 비하여 15% 정도 더 많은 6.42명으로 나타났다. 난방기구의 부주의한 사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부주의는 관심과 사전 예방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난방기구의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사용 전 전선의 피복 상태와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먼지로 인하여 손상된 전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화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 전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요즘 난방기구는 과열되거나, 충격을 받게되거나, 넘어질 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접촉 없이도 복사열로 인한 열의 전달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끄거나 전원 선을 뽑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셋째, 기기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다. 가연성 물질은 특별하게 어떤 물질을 가르키는 것이 아닌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불, 담요, 의류 등이 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화목보일러를 쓰이는 곳이 많다. 필자도 화목보일러 화재 진압을 몇 번 하게되었는데, 화목보일러 자체만 연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쌓여있는 장작으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약칭) [별표 1]에 그 화목보일러에 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연소가 확대될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울 연말 월동준비는 난방기기 안전수칙부터 확인해서 따뜻한 겨울을 나보길 바란다.

기고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농촌지역까지 스며든 마약! 대한민국도 더 이상 청정지역은 아니다

안기오 장흥경찰서 경무계장



생한 마약사범 검거가 그 예다. 마약범죄는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다.

정부에서는 마약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교육기관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언론 매체는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 홍보, 사법기관은 마약 유통 차단과 마약사범 검거, 국민은 마약의 심각성 인식 등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마약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함께 마약에 한 번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가 마약에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농촌까지 퍼졌다는 마약 관련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 준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글로벌 시대로 발전하면서 은밀하게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마약 거래가 상품을 거래하듯 인터넷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거기에 농촌, 도서지역의 관광지, 행사지 주변의 호텔, 펜션에 이르기까지 도농을 따지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하여 농어촌의 경우 노동 인력 감소로 인해 해외 인력이 노동 인력으로 유입되면서 농촌 지역의 마약 노출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최근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이외 해남, 장흥 등 농촌지역에서 발

기고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선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